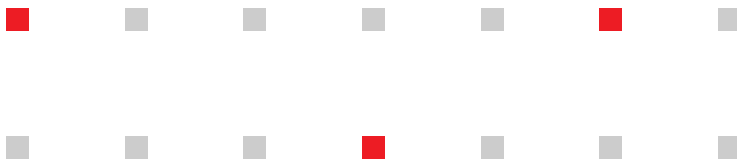




일본 대지진 100일, 전북의 대응방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구진 이 강 진 연구위원 kjl@jthink.kr

1. 문제제기
2. 일본 대지진의 영향
3. 전북의 대일(對日) 무역 구조
4. 일본 대지진의 영향력 진단
5. 제언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1년 6월 20일 vol.44

발행처: 전북발전연구원 | 발행인: 원도연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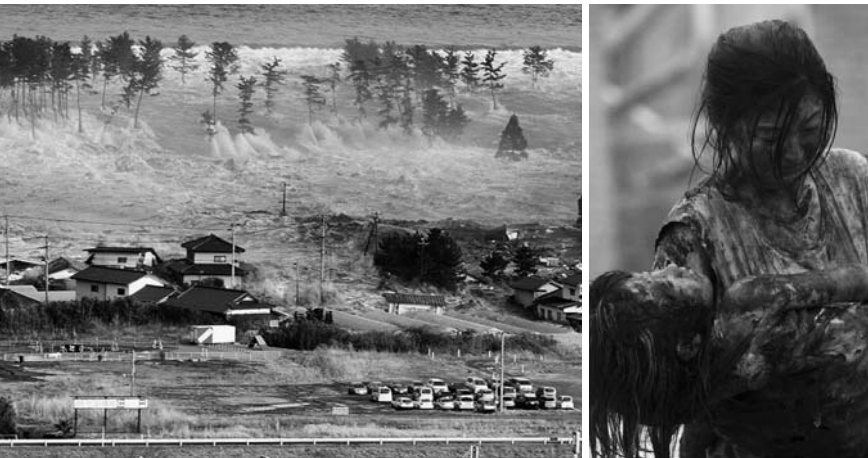
C O N T E N T S

일본 대지진 100일, 전북의 대응방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 1. 문제제기 4
- 2. 일본 대지진의 영향 4
 - 1) 인프라 및 산업시설에 미친 영향 4
 - 2) 주요 산업에 대한 영향 예측 6
 - 3) 2차 피해로 인한 영향 9
- 3. 전북의 대일(對日) 무역 구조 9
 - 1) 전북의 대일(對日) 수출 현황 9
 - 2) 전북의 대일(對日) 수입 현황 10
 - 3) 전북의 대일(對日) 수출입 업체 현황 11
- 4. 일본 대지진의 영향력 진단 11
 - 1) 지진 복구기간에 대한 견해 11
 - 2) 일본 기업들의 대응 11
 - 3) 한국 기업들의 반응 12
 - 4) 전북 기업의 피해 및 대응 13
- 5. 제언 14
 - 1) 전북 기업의 피해상황에 대한 정밀한 진단 및 지원 대책 필요 14
 - 2) 일본 기업의 Relocation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4
- ※ 참고문헌 15

대지진 영향에 대한 중기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 ①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지역에 규모 9.0의 대지진과 이에 따른 쓰나미의 발생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그리고 지역의 산업기반을 와해시켰고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의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 뿐 아니라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음
- ① 일본 대지진 이후 100일 가까이 지남에 따라 기본적인 인프라는 복구가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으나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과 계획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기업들의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① 세계은행은 일본 대지진 피해복구에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지진으로 인하여 일본의 전자정보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일본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① 닛토공업은 일본에 있는 8개 공장 중 2개가 대지진의 영향으로 조업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중국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힘(중국법인 자본금을 120만 달러에서 1,550만 달러로 확대)
- ① NTT그룹의 자회사 NTT데이터는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자사의 서버 수천 대를 간사이 지역의 데이터 센터로 이전시킬 계획이었지만 간사이 전력의 절전요청을 받고 나서 “이전 지역을 해외를 포함해 검토 하겠다”며 계획을 바꾸는 (매일경제 2011. 6. 12) 등 일본 기업의 국내 Relocation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로 이전을 타진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① 또한, 6월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요타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전력공급을 바란다”고 호소하였으며 “엔고 외에도 전력부족이 심화돼 기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일본에서 물건을 만들기가 다소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 한다”고 말해 일본 내의 전력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이탈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 ① 전라북도에서도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40여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기업은 수입처를 전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입고 날짜의 지연으로 인하여 조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부품 단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 ① 또한, 일부 기업들은 수출량이 전년대비 80% 정도로 절대적인 수출량의 부족으로 인한 수출중단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출이 늦어지고 있으나 다른 대안이 별로 없어 늦어지는 대로 그대로 거래를 진행할 예정임
- ① 이러한 전북기업의 피해상황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가차원의 다양한 대책(관세청의 지원정책, IBK기업은행의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등)을 전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① 또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본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기업자금을 보증하는 제도의 마련, 수출입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 수출입상담 지원 등과 같은 수입선 다변화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① 한편, 일본기업의 Relocation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일본기업의 Relocation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라북도는 홍보를 통하여 일본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은 전북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중기적인 Relocation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을 마련해야 함
- ① 무역협회전북지부, KOTRA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대상 기업명단 확보를 위한 노력과 이들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방안을 마련하여 일본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전북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이들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관기업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 문제 제기

- ▶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지역에 규모 9.0의 대지진과 이에 따른 쓰나미의 발생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그리고 지역의 산업기반을 와해시켰고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의 원전 방사능을 유출 사고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 뿐 아니라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음
- ▶ 일본에 대한 피해의 예측은 기관마다 다르나 KOTRA에 따르면 16~25조엔(GDP의 3~5%)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2011년 당해연도에 실질GDP 0.5%의 하향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
- ▶ 일반적인 견해로는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중 교통인프라는 어느 정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물질 누출로 식품 오염 등 2차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일본 뿐 아니라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 관동지역 및 동북지역의 발전능력의 25.3%가 피해를 입어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한 송전으로 수도권의 산업생산 및 소재업종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차질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 일본 대지진의 피해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없으나 KERI는 일본대지진의 피해 시나리오를 1)고베지진과 같이 빠른 회복, 2)방사능 오염과 열악한 재정 상태로 1년간의 복구기간 요구, 3)원전복구 실패, 주변지역의 생산 활동 중단 최소 2년간의 복구로 나누어 분석하여 일본의 GDP가 시나리오에 따라

0.7%~2.5%의 성장(1.9%성장률 가정)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는 등 시나리오 별로 큰 차이를 보임

- ▶ 일본 대지진이 100일 가까이 지남에 따라 기본적인 인프라는 복구가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으나 산업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과 계획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기업들의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 일부 산업에서는 지진자체 보다도 계획정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생산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지 100여일이 지나서 시점에서 일본대지진이 전라북도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일본 대지진의 영향

1) 인프라 및 산업시설에 미친 영향

(1) 인프라 피해복구는 순조롭게 진행

- ▶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지역 해안에서 규모 9.0의 대지진 발생과 연이은 쓰나미의 발생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사망 12,431명, 실종 15,153명(4월 5일 경찰청 발표)의 인명피해와 함께 16~25조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망
- ▶ 교통인프라는 피해가 심하였으나 빠른 속도로 복구가 되고 있어 장기화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동북지역 주요 15개 항만이 피해를 입었으나 재해발생 초기에도 모두 이용 상에는 문제가 없었음
- 공항의 경우 센다이공항은 피해 초기에 1개소만 폐쇄 되었고 이도 구원물자 수송을 위하여 1개 활주로를 운영하였던 것을 현재 국내선 운항을 재개하였고 6월말에는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고 7월 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완전 정상화 할 예정임
- 고속도로와 직할국도가 완전 복구되어 도로인프라는 원전제한구역을 제외하고는 복구되었고 신칸센과 일반철도도 거의 복구되어 원전규제지역을 제외하고는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됨
- ▶ 발전시설에 대한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의 발전 현황을 보면 총 발전량은 955,849GWh(e), 원자력 발전량은 279,230GWh(e)로 원자력 발전비중은 29.2%로 나타났고 운전 중인 원자로는 54개이며 2개가 공사 중, 2개는 장기운전 중지, 5개는 완전 폐쇄된 상태임
 - 도쿄전력 5개 발전소와 동북전력 4개 발전소가 재해 초기에 정지되어 있었으며 동경전력은 인가출력의 23.1%(1,489.6만KW) 피해를 입어 1도 8현에 대해 제한송전 실시 하였으나, 4월 8일 이후 난방용 전력수요의 감소와 산하 화력발전소의 재가동으로 제한송전을 마쳤으며 동북전력은 인가출력의 33.5%(557만KW) 피해를 입었으나 재해 초기에도 제한송전은 하지 않음
 - 수도권 지역 전력수급에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부족한 수도권 전력을 타 지역의 잉여전력으로 충당하려고 노력하나 1,000만 KW의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여름 성수기의 전력수요 충당이 큰 문제로 대두됨
 - 최근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는 지진으로 인하여 가동 중단된 상태이며 4~6호기도 점검을 위해 발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2011. 6. 9, 도쿄 전력 홈페이지)

〈표 1〉 일본 원자력 발전 현황

원 전		발전용량(MWe)	
		net	gross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439	460
	2호기	760	784
	3호기	760	784
	4호기	760	784
	5호기	760	784
	6호기	1,067	1,100
	소계	4,546(9.7)	4,696(9.6)
그 외		42,275	44,151
전 체		46,821	48,847

자료: 조경업 외,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 산업시설에 대한 피해 현황

- ▶ 산업적으로 동북지역은 제조업 및 수출입 비중이 작은 편이나 관동지역과의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조립산업인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분야 피해가 나타남
- ▶ 산업적 피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1995년의 고베지진과 비교를 하기도 하나, 직접적인 피

해만이 언급되고 이에 따른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추정만 하고 있음

- ▶ 동북지역 6개현은 전기기계 분야에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출입 비중이 10.7%로 가장 높으며 정밀기계 8.9%, 1차금속 7.6% 순으로 나타나 기계와 금속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표 2〉 동북지진과 고베지진의 비교

항 목	동북지역 6개 현	효고현('95년 기준)	
인구	9,335천명(7.4%, 2010년 기준)	5,402천명	
GDP	333천억엔(6.6%, 2007년 기준)	206천억엔(4.1%)	
대(對)세계 수출(비중)	70.5억불(0.9%)	331억불(7.5%)	
대(對)한 수출(비중)	8.3억불(1.3%)	7.8억불(2.4%)	
대(對)한 수출 품목	철강제품(기타제품 미마)	전자부품, 산업기계, 철강 등	
대(對)세계 수입(비중)	139.9억불(2.0%)	181억불(5.4%)	
대(對)한 수입(비중)	3.6억불(1.3%)	1.2억불(0.7%)	
수입 주요품목	일반기계, 어패류 등	플라스틱, 의류	
인명(사망, 실종)	27,584명(잠정) 추정	6,436명	
피해규모(조엔)	15~20조엔 (명목GDP의 3~5%)	10조엔 (명목GDP의 2.0%)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7 기준)	수송기계	2.3	2.2
	전기기계	10.7	3.5
	일반기계	4.4	7.4
	정밀기계	8.9	1.6
	화학	4.2	2.9
	1차금속	7.6	7.5
	금속제품	5.3	5.2

자료: KOTRA 2011. 4. 11

2) 주요 산업에 대한 영향 예측¹⁾

(1) 자동차부품 산업

- ▶ 우리나라는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비중이 높아 일본의 부품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업체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됨

- ▶ 동북지역 완성차 업체의 피해는 경미하였으나 2, 3차 협력업체들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조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진발생 초기 완전 조업중단에

1) KOTRA, 2011, "일본지진 발생 한 달-일본 산업계 복구 현황과 대일(對日) 수출입 영향" 참조

서 부분조업으로 개선, 본격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 중

- 업계의 특성상 몇 개 부품부족이 전체 생산 라인 가동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품의 안정적 공급, 확보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 ▶ 한편, 국내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의 경우 국산 화율이 95%에 달해 조달문제는 최소화되는 반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으며 만일 장기적으로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반사이익 폭이 커질 가능성 있음

〈표 3〉 대일(對日) 수입 상위 자동차 부품

부품명	금액(만\$)	전세계 대비 비중(%)
변속기 및 부분품	96,600	70.9
디젤엔진 및 부분품	7,500	16.6
핸들, 운전대와 운전박스	5,000	28.6
내연기관 펌프	4,600	24.7
브레이크 부품	4,400	19.0
....
합계	158,500	32.3

자료: 부품소재 통계 종합정보망, 2010년 기준

(2) 전기전자 산업

- ▶ 동북지역 전자산업은 제조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일본 생산의 20%를 차지함
- ▶ 반도체 공장과 반도체 제조장비 공장들은 대부분 조업재개를 시작한 상태이고 웨이퍼 제조를 하고 있는 신에쓰화학, SUMCO의 가동

중단이 지속될 시 웨이퍼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 디스플레이 업계는 동북지역 소재 기업이 많지 않고 산업 전체 피해도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품 및 장비공급 차질로 인한 간접영향은 우려가 될 수 있음



〈표 4〉 동북²⁾ 및 관동 지방이 일본 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동북	센다이	후고	고베	관동	도쿄
지역GDP	6.4	0.8	3.7	1.2	37.0	17.7
농림수산	15.6	0.1	1.7	0.1	17.1	0.7
제조업	6.1	0.2	4.3	1.0	29.9	7.6
식품	8.1	0.5	5.3	2.2	29.3	4.2
섬유	2.0	0.0	2.6	0.0	10.8	1.9
펄프종이	8.1	0.0	4.6	0.2	23.7	6.1
화학	4.2	0.1	2.9	0.6	37.4	10.7
석유석탄	1.2	0.8	0.6	0.2	53.9	6.1
요업토석	7.0	0.3	5.0	0.3	23.2	4.7
1차 금속	7.6	0.2	7.5	1.2	30.3	6.4
금속제품	5.3	0.2	5.2	0.5	29.8	5.1
일반기계	4.4	0.0	7.4	1.6	28.5	5.4
전기기계	10.7	0.0	3.5	1.1	25.9	6.0
수송기계	2.3	0.0	2.2	0.7	23.0	4.8

자료: KOTRA 2011, 411

(3) 정유, 화학 산업

- ▶ 일본 경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관계로 정유, 화학의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의 하락 안정세가 예상되는 반면 다운스트림 화학제품의 경우, 역내 공급차질 장기화 및 재난복구 수요로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 한편, 시장조사 업체인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현재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 시장인 독일과 이탈리아가 다시 시장 활성화 시책을 강구 중 이라고 전함에 따라 태양광 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헤닝 비히트 수석 애널리스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독일과 이탈리아가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눈 돌리고 있다”면서 “독일은 7개의 노후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고, 이탈리아는 자국 내 태양광 발전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함
- 특히 올 3분기에는 독일 정부가 조기에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낮출 방안을 내놓을 것이 유력해 보이며 결국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대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함

2) 동북지방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야마가타, 후쿠시마 등 6개현이며, 전자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

- 이에 따라 독일은 연간 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을 현재 3.5GW급에서 5GW급까지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며 올 2분기와 4분기에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이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임

(4) 철강 산업

- ▶ 동북지역 6개현에서 수출되는 철강제품의 전북 수입은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 철강업계는 수출경쟁국인 일본 철강 생산 차질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한국 철강업계는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관계를 가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이며 일본의 철강생산의 감소는 철강가격의 지지 및 상승을 유발하여 철강업계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
 - 특히 일본의 지진 복구용 철강수요의 증대는 한국철강의 수출 가능성을 높임

3) 2차 피해로 인한 영향

(1) 방사능으로 인한 2차 피해

- ▶ 원전의 완전 폐쇄까지 3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가운데 메릴린치 증권은 사고수습이 2년간 지속될 경우 보상비용이 최대 11조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
- ▶ 방사성물질 누출로 2차 피해 확대가 될 전망
 - 농수산 식품, 수돗물 방사능오염 확산 등 2차 피해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현의 채소, 우유 등 출하제한품목을 지정

하였음

- 각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인도는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금지, EU는 식품과 사료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WTO에 통보, 미국 식품의약국은 후쿠시마 등 4개 현에서 생산된 유제품과 과채류 수입 금지하는 등 수입규제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

3. 전북의 대일(對日) 무역 구조

1) 전북의 대일(對日) 수출 현황

- ▶ 전라북도는 대일(對日) 수출이 지난 5년간 341백만불(2006년)에서 457백만불(2010년)로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주요 수출품은 화학공업제품으로 수출의 절반가량(54%)을 차지하였고 기계류(14%), 농림수산물(11%), 전기전자(8%) 순을 보이고 있음
- ▶ 농림수산물에서의 수출은 화훼와 같은 산식물(31백만불, 58%, 2010년 기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 해조류와 연체동물을 수출하고 있음
- ▶ 화학공업제품에서는 정밀화학원료, 농약 및 의약품, 기타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음
- ▶ 철강금속제품은 형강의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고 동제품은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기계류의 수출은 자동차부품과 자동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요소 또한 수출하고 있음

▶ 전기전자는 반도체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전(Heavy Electric)기기가 일부 수출되고 있음

〈표 5〉 전북의 대(對)일본 수출

(단위: 백만불)

항목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341	295	350	330	457
농림수산물	38	33	32	41	52
광산물	1	1	1	1	1
화학공업제품	153	171	208	191	245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8	9	10	7	9
섬유류	7	3	7	6	9
생활용품	0	0	0	2	1
철강금속제품	27	20	29	18	34
기계류	66	21	33	36	62
전기전자	31	30	25	23	37
잡제품	9	6	5	5	6

자료: KITA Net

2) 전북의 대일(對日) 수입 현황

▶ 전라북도 대일(對日) 수입은 4.2억(2006년)에서 6.6억(2010년)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의 규모가 수출을 초과하여 무역적자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보면 화학공업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전기전자 순으로 나타남

▶ 일본과의 교역은 농림수산물의 수출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표 6〉 전북의 대(對)일본 수입

(단위: 백만불)

항목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415	488	604	477	664
농림수산물	2	4	7	4	7
광산물	10	9	9	8	7
화학공업제품	172	199	211	169	277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8	8	14	15	17
섬유류	8	8	10	4	6
생활용품	1	1	0	1	1
철강금속제품	36	62	110	108	82
기계류	107	120	167	101	187
전기전자	72	77	75	68	79
잡제품	0	0	0	0	0

자료: KITA Net

3) 전북의 대일(對日) 수출입 업체 현황

- ▶ 전라북도의 대일(對日) 무역업체는 270여개로 140여개의 수출업체와 130여개의 수입업체가 있으며 일부 업체는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행하고 있음
- ▶ 수출 주력업종은 기능성 광학필름, 도료첨가제 등과 같은 화학공업업체, 반도체 부품 및 LED 관련 전기전자업체, 자동차 휠 및 부품과 같은 자동차부품 업체, 파프리카나 화훼 등을 수출하는 업체, 양말 및 장갑과 같은 제품을 만드는 섬유업체, 막걸리 비빔밥과 같은 음식업체 등 다양함
- ▶ 수입 주력업종은 섬유업, 음식업, 농업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입이 되고 있으며 화학공업제품과 기계류에 대한 수입 비중이 특히 큰 편임

4. 일본 대지진의 영향력 진단

1) 지진 복구기간에 대한 견해

- ▶ 세계은행은 복구에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전체 피해액이 파악되지 않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원전 피해로 인한 전력부족, 주민 이전 및 관광객 감소 등 피해규모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고베지진의 경우 진도가 작고(M7.3) 쓰나미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프라의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생산 활동의 복구도 조기 실현됨
 - 고베지진의 경우에 일본 정부는 인프라, 주택, 산업 3분야에 대해 긴급복구 3년 계획을 수립

하고 지진 전의 수준을 회복한다는 목표는 1998년 3월에 거의 달성되었음

- ▶ 복구기간에 관련하여 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전력수급이 중요 포인트라고 지적하고 수출회복은 단기적으로 달성될 것이나 내수침체를 예측함
 - 정전의 장기화로 인한 가동률 저하는 고용의 감소, 기업이익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
 - 국제경기 회복으로 수출은 생산시설의 정상화에 따라 곧 회복될 것이나 내수의 침체로 결국 거시경제는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2) 일본 기업들의 대응

- ▶ 애널리스트들은 지진으로 인하여 일본의 전자 정보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일본기업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 ▶ CCID컨설팅은 최근 중국의 전자정보 산업에 대한 일본 지진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지진으로 일본의 실리콘 자재, 액정 자재 및 일부 반도체와 전자 소자의 생산은 직접적으로 매우 큰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함
 - 게다가 전력이 부족하고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각 업종의 향후 전반적인 가동 상황 역시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
- ▶ 닛토공업은 일본에 있는 8개 공장 중 2개가 대지진의 영향으로 조업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중국 진출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힘(중국법인 자본금을 120만 달러에서 1,550만 달러로 확대)
 - 중국 산업계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지진 이후 일본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중국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철저히 피해왔던 핵심기술이나 첨단기술의 중국 이전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함

- ▶ 한편, 일본 산업계는 한국 기업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한국행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대기업 CEO 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5.2%가 '해외 부품 소재 조달을 늘릴 것' 이라고 응답한 반면 20.7%가 국내에서 조달처를 분산시키겠다고 함
- ▶ 또한 대한상의 설문 응답기업의 10.2%가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일본기업을 알고 있다'고 말해 '탈일본' 기업들의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6월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요타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전력공급을 바란다"고 호소하였으며 "엔고 외에도 전력부족이 심화돼 기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일본에서 물건을 만들기가 다소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 한다"고 말해 일본 내의 전력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이탈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 ▶ NTT그룹의 자회사 NTT데이터는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자사의 서버 수천 대를 간사이 지역의 데이터 센터로 이전시킬 계획이었지만, 간사이 전력의 절전요청을 받고 나서 "이전 지역으로 해외를 포함해 검토 하겠다"며 계획을 바꾸는 (매일경제 2011. 6. 12) 등 일본 기업의 국내 Relocation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로 이전을 타진하고 있는 기업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한국 기업들의 반응

- ▶ 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전기전자 등 분야에서는 부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으며 석유화학과 철강 등은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대일(對日) 의존도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 (5. 29,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일본 대지진에 따른 대응활동 설문에서 '일본 이외 부품소재 조달선 확보' (26.5%)와 '수출시장 다변화' (25.8%)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 응답기업 4곳 중 1곳(26.4%)은 '일본지진 이후 대응조치를 취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답하였으며 10.6%의 기업은 '일본지진의 영향을 현재도 받고 있다'고 말함
- ▶ 특히 대일(對日) 부품의존도가 높은 기계와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유화학과 철강 등의 업종은 일본의 극심한 에너지난과 지진피해 복구과정에서 반사이익을 보았으며 식자재 조달에 차질을 겪었지만 방사능 누출로 대일(對日) 수출이 급증한 식품업종 등은 수혜와 피해가 교차함

〈표 7〉 업종별 일본지진 영향

(단위: %)

구분	지진영향 있음			지진영향 없음	
	피해	수혜	(피해 X 수혜)		
전체	24.8	7.4	(2.2)	70.0	
업종별	기계	44.2	0.0	(0.0)	55.8
	전기전자	34.1	4.5	(0.0)	61.4
	반도체	34.3	8.6	(2.9)	60.0
	식품	34.9	11.6	(2.3)	55.8
	철강	9.6	11.9	(2.4)	80.9
	석유화학	22.0	21.9	(7.3)	63.4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5. 29

4) 전북 기업의 피해 및 대응

(1) 전북 기업의 피해 상황

- ▶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이익을 볼 것이라 전망하였으나, 이익보다 피해를 본 기업이 많음
- ▶ 전라북도 기업들에 미친 피해는 부품조달 문제, 수요 감소로 인한 문제, 물류차질 문제, 기타 문제로 나눌 수 있음
- ▶ 일부 업체는 수입거래처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 거래를 중단하고 수입국 대체를 고민하고 있는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인하여 조업의 차질, 부품의 수급 어려움으로 A/S 문제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 또한 대지진으로 인한 수요의 감소로 수출이 중단된 경우가 있는데 특히 화훼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중단 위기, 일본의 내수감소로 인한 수출물량의 감소, 일본의 정전으로 인한 조업시간 단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물량의 감소 등 일본의 수요 감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 ▶ 단기적으로 물류운송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본 기업들도 상당 수 있었으며 일부 기업은 계약을 연기하거나 신제품 출시를 연기하거나 상담을 시작하였으나 상담 자체가 무산된 경우도 발생하였음
- ▶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되는 것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 및 수입국 대체 등을 고려하고 있음

〈표 8〉 일본 대지진 피해 기업

구분	업 체
부품조달	나노포커스레이, 청용산업, 호룡 등
수요감소	로즈피아, 전주비빔밥(주), 신진타코리아(주), 하이델 등
물류문제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주호, 해전수산 등
기타	씨에이치게임즈, 푸른생명, 아스트로닉 등

자료: 무역협회 전북지부 자료 정리

(2) 전북 기업의 대처 상황

- ▶ 최근 초기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재조사한 결과 피해형태가 5가지 정도로 나타남
 - 일부 기업은 수입처를 전환하였으나 입고 날짜의 지연으로 인하여 조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 일부 기업들은 부품 단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일부 기업들은 수출량이 전년대비 80% 정도로 절대적인 수출량의 부족으로 인한 수출중단을 고려하고 있음
 - 일부 기업은 수출이 늦어지고 있으나 늦어지는 대로 그대로 진행할 예정임
 - 일부 기업은 단기적인 쇼크로만 작용하여 현재 아무 문제없이 무역거래 함
- ▶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손해가 지속적인 경우가 많았으며 단기적인 현상일 지라도 경영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피해는 보는 것으로 나타남



5. 제언

1) 전북 기업의 피해상황에 대한 정밀한 진단 및 지원 대책 필요

▶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의 효율적 활용

- 관세청에서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을 운영하여 일시 수출차질이 예상되는 항공 수출화물을 중심으로 신속통관을 위한 지원 대책(수출물품 적재 의무기간 연장, 세관 창고에 일시반입 허용, 24시간 통관체제 운영)을 시행하고 대지진으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업체에 대한 기업지원(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 지원, 수출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업심사 유예) 실시, 정부 차원의 긴급구호업무 지원을 위한 신속통관 및 출입국 편의제공 등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타 기관 및 단체의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및 정책수혜를 받기 위한 행정지원(예: IBK 기업은행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전북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40여개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기업자금을 보증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수출입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 수출입 상담 지원 등과 같은 수입선 다변화 정책 등 추진

2) 일본 기업의 Relocation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일본 기업의 Global Sourcing 증가 전망

- 대(對)한국 부품소재 조달이 확대될 전망이다 가운데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작성한 ‘지진에 따른 일본기업의 경쟁력 약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진 피해가 장기적으로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품소재 조달을 한국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성이 6월 8일 발표한 5월 중순까지의 교역통계 속보를 보면 교역수지가 1조 534억 200만 엔의 적자로 이는 전년동기비 3.2배 확대되었으며 이번 사태로 인해 일본에서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해외 제조업체들이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의 조달처를 모색하기 시작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수출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일본의 중소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이 집단으로 중국 강소성에 진출하는 등 일본 기업이 한국, 대만,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부품소재를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기관은 일본 기업을 초청해 부품소재 수출상담회를 개

최하는 등 일본 고객 잡기에 나선

- 도시바기계는 4개 사업부 10여명의 구매담당자를 파견해 유압판넬, 너트기어 등 30여개 품목의 구매를 상담하였고 또 히타치는 주물, 단조, 기계가공 등 경쟁력 있는 한국산 부품을 조달할 것으로 기대

▶ 도 차원의 대책마련 필요

- 홍보를 통하여 일본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은 전북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일본기업의 Relocation 수요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전라북도 차원에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중기적인 Relocation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무역협회전북지부, KOTRA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대상 기업명단의 확보와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방안을 마련하여 일본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통한 기업유치와 전략적으로 유치할 업종에 초점을 맞추어 직능단체에 대한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북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으며 이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관기업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이지평 외, 2011, “일본 대지진, 경제적 충격파는 어디까지”, LGRI 리포트, LG경제연구원

이지평, 2011, “일본 대지진의 여파와 일본경제의 중장기적 방향”, Japan Insight,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2011, “대지진 충격에 따른 일본 기업의 대응 방향”, SEERI 경제 포커스, 2011. 4. 19(제334호)

조경엽 외, 2011,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KERI insight, 한국경제연구원

토쿄전력 홈페이지, www.tepco.co.jp

KOTRA, 2011, “일본 대지진 발생 한 달, 일본 산업계 복구현황과 대일 수출입 영향”, Global business Report 11-012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양동 4가 1번지)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